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구경북 우리는 대한민국

2020년 5월 12일(화) 16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공동배포 : 국무조정실,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금융위원회

배포일시	2020. 5. 12.(화)	담당부서	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팀
담당과장	국무조정실 이성도 과장(044-200-2446)	담 당 자	한레지나 서기관(044-200-2415) 안수용 사무관(044-200-2449)
	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과장(044-203-4510) 권기만 팀장(044-203-4520)		홍석민 사무관(044-203-4512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준모 과장(044-202-6140)		구희선 사무관(044-202-6142)
	금융위원회 정선인 팀장(02-2100-2841)		김기훈 사무관(02-2100-2872)

규제 샌드박스 지원기능 민간에 첫 개방

-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, 규제 샌드박스 문턱 낮춘다 -
- 정 총리,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역할 강조 -

□ **정세균 국무총리**는 **5월 12일**(화) 오후, **대한상의**(서울시 중구)에서 개최된 **'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' 출범식**에 참석하고 **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** 등과 함께 **간담회**를 가졌습니다.

* (참석) ▲기업 :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, 삼성전자 사장(이인용), 현대차 사장(공영운), 위쿡 대표(김기웅), 홈스토리생활 대표(한정훈), 두나무 대표(이석우), 콰라소프트 대표(변창환) 등
▲부처 :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,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,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

○ **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**는 그동안 **공공기관***에서만 **운영**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**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**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.

* (5대 전담기관) 정보통신산업진흥원(ICT융합),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산업융합, 규제자유특구),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(스마트도시), 핀테크지원센터(혁신금융)

□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**규제 샌드박스 신청, 컨설팅, 부처협의 협조, 사후관리를 지원**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.

○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**지원센터**를 **시범 운영** 중으로, **현재까지 57건의 과제**를 접수해 검토 중이며, **부처 협의** 등을 거쳐 **순차적**으로 과기정통부, 산업부 **규제특례심의위원회**에 각각 **상정**할 계획입니다.

□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, **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단체장 간담회**에서 **박용만 대한상의 회장**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**설치를 건의**했고,

○ 이후, 지난 1월 **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전격 결정**하여 **'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'**을 통해 발표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**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**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12일, **오늘부터 시행**되기에 이르렀습니다.

□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**기업 간담회**에서 **정총리**는 "**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**는 **규제혁신**"이라며, **신산업** 분야 **혁신의 골든타임**을 지키기 위해 **규제샌드박스**의 **적극적 활용**을 강조했으며, "앞으로도 **경제 활력** 회복을 위해 **정부차원의 기업 지원**에도 최선을 다하겠다"는 뜻을 밝혔습니다.

○ 아울러,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○ 이에 대해, 박용만 회장은 민간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수용하고 협조해준 정부에 감사를 전하고, "**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**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"이라며 "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**새롭게 리빌딩**(Re-building) 되도록 노력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

○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**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**하며,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**법과 제도를 혁신**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□ 한편,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·면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해 지금까지 ICT・산업융합・혁신금융・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의 **총 239건**('19년 195건, '20년 44건)의 **규제 특례를 승인**하여 그간 **경직된 규제**로 어려움을 겪던 **신제품과 신서비스**들의 **시장 진출**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, 외국에 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빠른 심사가 가능한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정립해 승인 기업들은 2,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20여개 기업은 이미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했습니다.

○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핵심 규제혁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홍석민 사무관(☎ 044-203-45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